의생신(意生身), 무명주지 의지 때문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㊹ 의생신(意生身)

〈원문〉 "세존이시여, 또 마치 번뇌의 연(緣)과 유루업(有漏業)의 인(因)으로 삼계(三界)를 내는 것같이 무명주지의 연과 무루업(無漏業)의 인으로 아라한·벽지불·대력(大力)보살들의 세 가지 의생신(意生身)을 내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지위와 저 세 가지 의생신이 나는 것과 무루업이 나는 것이 모두 무명주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의생신과 무루업(無漏業)이 모두 무명주지를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유애주지(有愛住地) 등 네 가지 주지는 무명주지와 업이 같지 않나이다. 무명주지를 여의는 것은 네 가지 주지를 여의는 것과는 달라서 부처님 지위에서 끊는 것이며, 부처님의 보리(菩提) 지혜로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라한·벽지불은 네 가지 주지는 끊었으나 무루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재한 힘을 얻지 못하며, 완전한 열반을 증득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나 벽지불 그리고 맨 마지막 몸(最後身)을 받은 보살은 무명주지에 덮였으므로 저마다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알지도 보지도 못하므로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끊지 못하였으므로 허물이 남은 해탈이라 하고, 허물을 모두 여읜 해탈이 되지 못하므로 미완성의 청정이라 하고, 완전한 청정이라 하지 못하며, 더 성취할 게 남아 있는 공덕을 성취했을 뿐 완전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모자람이 있는 해탈과 모자람이 있는 청정과 모자람이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모자람이 있는 고(苦)를 알았고, 모자람이 있는 집(集)을 끊었고, 모자람이 있는 멸(滅)을 증득하였고, 모자람이 있는 도(道)를 닦았으니, 이것을 부분적 열반[少分涅槃]을 얻었다 합니다. 부분적 열반을 얻은 이는 완전한 열반의 경지를 향하는 것일 뿐 무명주지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강설〉 무명주지(無明住地)는 오주지(五住地) 가운데 가장 끊기 어려운 마지막 것으로 근본무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앞의 사주지(四住地)의 번뇌를 끊었다 하더라도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면 번뇌가 완전히 끊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승(二乘)이나 대역보살이 얻은 열반이 소분열반이라고 한 것은 무명주지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명주지가 남아 있으면 아집은 끊었으나 법집(法執) 남아 있는 것이 되고, 번뇌장(煩惱障)은 끊었으나 소지장(所知障)이 남아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승의 수행을 평가 절하하여 법공(法空)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의생신이란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몸이라는 뜻이다. 의성신(意成身)이라고도 한다. 오온에 의해 구성되는 몸이 아닌 의온(意蘊)에 의해서 구성되는 몸이다. 이 의생신은 불보살의 경우와 범부 중생의 경우가 다르다. 중생의 의생신은 잠자다 꿈속에 나타나는 몸처럼 정혈(精血)의 연을 빌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의생신이라 하지만 업력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사람이 죽은 다음, 다음 생의 몸을 받을 때까지의 중유 기간 곧 영가로 있는 상태도 의생신으로 본다. 그러나 불보살의 경우는 중생을 교화 제도하기 위한 원력으로 의생신을 나타낸다고 한다. 특히 부처님의 경우는 여의불(如意佛), 혹은 수락불(隨樂佛)이라 한다.

불교의 일반적인 교설로 볼 때 삼계라는 세계가 무명에 의한 중생의 업에서 생기고 다시 무명의 힘에 의해 미계의 의생신이 생긴다 한다. 물론 이 무명이 끊어진 부처의 지위에서도 의생신은 중생의 의생신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기는 것이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고부터 열반의 개념이 달라졌다. 열반(涅槃)이란 원래 범어 Nirvama를 음사한 말로 적멸(寂滅), 멸도(滅度), 원적(圓寂)이라 번역한다.

열반을 유여열반(有餘涅槃)과 무여열반(無餘涅槃)으로 나누는데 이 장에서 아라한이나 벽지불은 무명주지에 덮여 무명이 남아 있으므로 아직 번뇌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끝없이 의심해야 큰 성취 얻어"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㊼ 선정수행 조건과 깨달음 위한 조절법

세 번째는 대의심(大疑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큰 의심(大疑) 끝에 대오(大悟)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크게 의심할수록 크게 깨친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무(無)라고 했는고?' '이것이 무엇인고?' 등의 알 수 없는 공안(公案)에 대한 불같은 의심(疑心)을 일으켜야 합니다.

화두에 대한 해답은 책이나 학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배우고 익혀도 소용이 없고, 경전을 통해서도 답이 없습니다. 오직 '이! 하는 놈이 무엇인고? 이뭣고?' 성날 때도 '이뭣고?' 슬플 때도 '이뭣고?' 망상이 생겨나도 '이뭣고?' 어느 때나 '이뭣고?'를 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 답을 알 수 없는 화두가 항상 눈앞에 성성하여 생활 속에 화두가 항상 들릴 때만이 대도 성취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약 화두를 놓쳐 버리고 온갖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며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으로 끌려 가게 되면 바로 마구니 지옥에 떨어지거나 귀신굴에 빠져 마귀와 함께 노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정·삼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리심과 서원을 일으켜야 하고, 두 번째는 과거세에 지은 악업을 참회하고 예경과 권청과 수희와 회향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심을 일으켜 용맹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훌륭한 참선을 통해 선정삼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3. 깨달음을 위한 몸과 마음의 조절법

불자 여러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위한 훌륭한 참선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절해야 합니다.

△첫째, 음식을 조절해야 한다.

깨달음을 위한 훌륭한 참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숨이 급해지고, 모든 혈관이 잘 통하지 않아서, 마음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할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또 음식을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몸이 허약하게 되고 마음이 배고픔에 걸려서 뜻과 생각이 고정되지 않아 선정·삼매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럽고 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몸에 좋지 않은 독한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몸의 구성요소가 서로 뒤틀리게 되어서 병마가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위한 올바른 참선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잠을 조절해야 한다.

참선을 할 때 선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마(睡魔)입니다. 수마를 쫓기 위해서는 평소에 잠을 충분히 자두어서 수면 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을 적게 자기 위해서는 평소에 적게 자는 습관과 수련을 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참선을 통해 수마를 쫓으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참선을 위해서는 미리 적당한 수면을 취해 두거나 평소에 잠을 적게 자는 수련을 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감정(五情)이 어둡게 가려져 손발을 제멋대로 놓고 육체가 쓰러져 누워 깊이 조는 것을 '잠잔다' 고 표현합니다. 잠은 무명이 미혹하여 마음을 덮어 버리는 것이니 만큼 잠을 제멋대로 설치게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면 도리어 참선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참선 수행한 수행력을 잃게 되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선근을 침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세월의 무상함을 깨달아서 반드시 수면을 조절하고 항복시켜 정신력으로 생각과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잠을 조절하게 되면 마음이 청정한 경지에 머무르게 되어 깊은 선정·삼매가 이루어집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㊹ 앙굴리말라의 경

진리는 모양과 소리에 있지 않다

앙굴리말라는 세존께 시로써 이와 같이 물었다.

"수행자여, 그대는 가면서 '나는 멈추었다'고 말하고, 멈춘 나에게 '그대는 멈추어라'라고 말한다. 수행자여 나는 그대에게 그 의미를 묻는다. 어찌하여 그대는 멈추었고 나는 멈추지 않았는가?"

"앙굴리말라여, 나는 언제나 일체의 살아있는 존재에 폭력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있는 생명에 자제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언어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일상사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어떤 범위를 정해 놓았으니 따로 유추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의 언어들은 그때의 뉘앙스(nuance)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언어는 완성이 없고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겨울이라는 단어는 겨울이 있어 겨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겨울이라는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것은 제각각 변화한다. 지역과 문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언어가 가지는 의미는 다르고 다양하다.

그렇다면 스스로[無我]에게 언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의식이 가진 이원성의 언어를 벗어나 일원성에서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버리고 움직임 없는 본질을 드러내는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뭇 삶이 스스로[無我]가 사용하는 언어의 조합을 엉뚱함으로 느끼는 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정성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 때문이다.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 라는 말이 있듯이 무엇에 잡혀있는 삶을 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고정된 사고력으로 보게 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는 언어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선정(禪定)' 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육조 스님은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선(禪)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定)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래는 모양과 소리가 아니다."와 다르지 않다. 진리는 모양과 소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선가(禪家)에서는 "수행 중에 책을 보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 자칫 잘못 이해해서 책 자체를 보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경을 읽을 때 글자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다. 글자의 뜻을 해석하면 언어의 고정된 고집이 생겨나 알고 있는 것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수행에 가르침[經]이 없으면 어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는가. 가르침은 예외 없는 바탕의 불변성에 대한 공유이고, 진리는 뭇 삶들의 본바탕인 것이다. 본바탕은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지만, 뭇 삶은 나타나고 사라지는 흐름 속에 존재하면서 가진다는 마음, 가졌다는 마음, 가질 것이라는 마음을 내어,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노력한다. 잠시 집중하는 노력은 손으로 그 물을 가둬두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달마대사와 동시대의 선승 부대사(傅大士)의 선시를 보면, 언어가 가지고 쓰임새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 수 있다. 이때 다양하다는 것은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으로 숨어 버리는 표현이다. "빈손에 호미를 들었고 걸으면서 물소를 탔다./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는데 다리는 흘러도 물은 흐르지 않는다." 선시(禪詩)의 내용은 둘 째 치고 앞뒤 문맥이 맞는 구석이 없다. 그러나 바탕의 불변에서 보면 어느 하나 빠짐없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문맥도 바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이 '나[無]' 이고 무엇이 '나[無]가 아님' 을 모른다면 천년만년 언어 속에 파묻혀 헤매는 일이 되는 것이다.

눈으로 제 눈은 보지 못하지만, 천하에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엄동설한에 부는 찬바람이 제아무리 세차게 불더라도, 움트는 싹을 어찌 하겠는가.

〈(사)여시아문 선원장〉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